

'지혜'로 통과한 출판의 암흑기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8

김병익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

“책을 펴내면서 우리가 세운 입장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즉물적인 대항이 아니라 현상을 뛰어넘어 자유와 계몽의 정신을 밀고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역사나 인문학의 교훈에서 찾으며 세련된 문학적 표현에서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자와 발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출판 작업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와의 소리없는 씨름 같은 것이었다.”

문학과지성사가 창업한 1970년대 중반 이후라면 유신정권이 한껏 광포해져서 어떤 형태의 비판적인 발언도 허용될 수 없었고 저항적인 지식인이나 저자들은 온전할 수 없었으며 필화와 금서 조치가 다반사였고 필자들과 발행인들은 타율·자율의 검열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 상황이 그러럼 어둡고 춥고 두려운 것이었기에 언론계와 대학에서 강제 퇴직, 퇴학당해 마지못해 출판계로 끼어든 비판적인 신참 출판사들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며 권력의 탄압에 대항하려는 의지도 강렬해지고 있었다. 이 시기로부터 1980년대 후반 언론과 출판, 그러니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확보되기까지의 10여년 간은 우리 출판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식인의 역사, 아니 문화의 역사에서도 권력에 저항하며 지적인 현상타개를 본보기로 보여준, 극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한다.

본문은 그대로 두고 제목만 바꿔 검열 통과해 이 어려운 시절에 문학과지성사의 출판물이 판금당한 적도, 필화를 입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글을 쓰거나 책을 내면서 우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즉물적인 대항이 아니라 현상을 뛰어넘어 자유와 계

몽의 정신을 밀고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역사나 인문학의 교훈에서 찾으며 세련된 문학적 표현에서 확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들이 근원적인 성찰과 인식의 확대를 통해서 이뤄지기를, 사유와 감동을 통해서 공감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행간과 지배(紙背)에서 독자와 교류하기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자와 발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출판 작업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와의 소리없는 씨름 같은 것이었다.

그런 예가 1978년 3월에 간행한 고려대 정문길 교수의 《소외론 연구》였는데, 이 연구서 발행은 이중의 모험이었다. 우선 당시만 해도 생소한 '소의'를 주제로 한 이 저서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와 박사학위 논문으로 준비된 것인데, 출판 작업을 시작할 때는 아직 논문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우리 정치학계의 주류가 아닌 주제의 이 논문을 미처 심사도 이뤄지기 전에 조판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통과 보류된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교수의 논문을 별쇄본으로 만드는 기회에 단행본으로 연계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자와 상

의해 제작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외론'의 연구가 청년 마르크스의 수고본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후의 그 논의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검토하는 데서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타임》지의 김일성 사진도 먹칠돼 반포되며 마르크스의 '마' 자도 발음할 수 없는 판에 그의 초기사상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비판이 과연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모험하기로 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물론 통과됐지만 이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마르크스 부분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출판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나나 저자는 본문에서 문제될 부분을 삭제하거나 생략할 생각은 물론 없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은 심사에 제출된 논문의 제2장 〈청년 마르크스의 소외론〉 제목을 〈1830년대의 소외론 논의〉로 고치자는 것이었다. 본문은 그대로 둔 채 제목만 바꾼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이지만 원문을 보존한 채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꾀는 성공했다. 당시 출판 허가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던 '납본필증'이 나왔고 그래서 서점에 배포될 수 있었으며 이듬해 일조각 한만년 사장이 선친의 이름을 기려 제정한 '월봉(月峰)저작상'을 수상했고 이후 10여 년 동안 매년 1천부 이상 나가는 스테디셀러가 됐다.

뒤늦게 압수 소동 벌어진 조세희의 문제작

《소외론 연구》에 이어 간행된 것이 조세희씨의 문제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는 조세희란 이름을 알지 못했는데, 조혜일씨가 어느날 《문학사상》에 실린 아무개의 작품을 읽어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마 <칼날>이었을 것인데 처음 본 작가의 이 작품에는 아직 분명한 느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두어 달 후 발표된 <피비우스의 띠>를 읽었고 나는 “이거다!” 하는 신선한 충격을 느꼈

다. 우리는 《문학과지성》(1976년 여름호)에 재수록했고 다음호에 다시 <우주여행>을 잇달아 재수록했다. 그리고 그에게 신작을 청탁했다. 그래서 실은 것이 중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적극적이었고 조세희란 이름은 혜성처럼 문단을 강타했다. 잡지들마다 그에게 원고를 청탁했고 그는 문제적인 작품들을 속속 발표했다. 나는 그의 중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그의 작품에 자신감을 얻어 그에게 중단편들을 연작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면서 양이 차면 단행본으로 내자고 제의했다. 지금도 기억되지만, 그는 작은 메모지에 자신의 작품 구상과 목차를 들여다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연작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간행된 것은 열화당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청진동의 사무실에서 문학과지성사가 분리해 중앙청 옆 통의동으로 이사한 직후였다. 여기 수록된 작품들 모두가 잡지에 먼저 발표됐던 것이고 그것이 검열관의 의혹을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내는 데는 별 두려움이 없었고 다만 이 창작집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한담에 섞인 관심이었다. 김 현은 “5천부?” 했지만 나는 이해 중에 “1만부 이상!”이라고 응수했다. 초판 3천부가 나가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고 2쇄는 2천부, 그 출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3쇄에서는 5천부, 그리고 이어 1만부씩 찍었다. 대단한 속도였고 서평으로, 기사로, 서점들의 재촉으로, 독자들의 문의로 그 반응은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마 그해말까지 5만부 이상 판매됐을 것인데, 조세희의 보고에 따르면 한 목사는 몇십부를 사서 신자들과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일까지 있었다.

오규원이 백영수 화백의 그림을 얻어 동화책처럼 아름답게 장식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 나는 두어 차례 글을 썼거니와 당시의 노동현장을 감동 깊게 묘사한 이 작품은 당시 문단의 토론 주제였던 ‘참여론/순수론’ 혹은 ‘리얼리즘/모더니즘’의 논쟁을 종합하는, 아니 뛰어넘는 문학사적 성과를 길어내면서 참혹한 현실을 아름다운 감수성으로 싸안아 사회성과

미학성을 동시에 일궈낸 걸작-문제작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와 베스트 북과의 운명적인 결렬을 극복해 좋은 작품 - 많이 나가는 책의 가장 행복한 경우를 만들어낸 것으로 주목했다. 뒤늦게 검열관들도 이 작품의 문제성을 깨달았던 듯해서 기관원이 우리 출판사에 와서 조사도 하고 청와대의 한 수석도 어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느냐고 못마땅해했다는 이야기를 친구인 출입자를 통해 듣기도 했는데 이럴 즈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그해 동서문학사에서 주관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연극과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판이어서 판금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파출소 경관들이 일선 서점에서 이 책을 압수해갔다는 보고는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

저자의 이력과 안면 덕으로 납본필증 받기도

1979년 10·26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신문·잡지와 함께 모든 단행본도 검열받아야 했던 시절에도 우리의 책들은 요행 무사히 간행될 수 있었다. 시정 안에 있었던 검열관실에서 우리 책으로 먼저 걸린 것이 최인훈의 《광장》이었다. 1976년 기획된 ‘최인훈 전집’의 첫권으로 나온 이 소설은 이미 스테디셀러로 굳어진 상태였는데, 그것의 중쇄판(重刷版)이 납본됐다가 주인공 이명준이 북으로 넘어가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대목이 문제된 것이다. 나는 영관급 장교와 토론을 벌였고 거기에 촉탁으로 파견 나간 친구의 도움으로 판금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즈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김학준 교수의 《러시아 혁명사》가 납본필증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권 인사가 창간한 월간 《세대》에 2년간 연재된 이 글은 19세기 이



우리 출판의 '중세시대'였던 1970년대 말, 문학과지성사는 정문길·조세희·김학준씨의 역작을 잇달아 펴내 한국에 진보주의적 사조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정문길 교수(왼쪽)와 조세희씨.

후의 러시아 지식인사를 아우르면서 1917년의 대혁명 과정을 대화소설처럼 흥미롭게 펼치고 있는 ‘작품’으로 학문적인 무게를 지니면서도 누구나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된 일종의 논픽션이었다.

이야기로서도 재미있거니와 20세기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소상한 소개는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그것은 극히 오늘의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얻을 대목이었다. 이 연재를 눈여겨본 나는 김학준씨에게 출판을 제의했고 그도 흔쾌히 수락해 전면적인 수정을 가해 원고를 넘겨줬다. 그 방대한 저서가 하필 1979년 12월 말에 간행됐다. 검열 기관에 이 책을 접수하면서, 아무리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집필됐다 하더라도 금기시되던 소련의, 그것도 공산주의와 혁명에 대한 정공법적인 서술이었기에 나는 납본필증 영수를 거의 기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학준 박사가 ‘국립’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 여권의 잡지에 연재됐다는 점에, 저자의 넓은 안면과 교제의 덕으로 검열을 통과했다. 그것은 의외였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소의론 연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이어 한국에 진보주의적 사조를 도입하고 현상 타개를 향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 문학과지성사가 선편을 잡을 계기를 이루게 된 것이었다.●